

국민통합위원회, 한부모가족시설 방문해 사랑의 온기 나눠

김한길 위원장 “한부모가족 자립할 수 있게 사회적 관심 계속되길”

-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(위원장 김한길, 이하 통합위)가 연말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면서 방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.
-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, 청년위원, 지원단 직원들은 12월 27일(금) 서울 서대문구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(원장 여운자, 이하 두리홈)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, 총 30가구의 한부모 가정에 겨울 이불, 장난감,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했다.
- 한부모가족들은 알찬 내용물로 채워진 방한 꾸러미에 고마워했고 특히 새로 통합위가 마련한 그네에 크게 반색했다. 두리홈 아이들의 유일한 야외 놀이기구였던 기존의 그네가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었는데 더 크고, 많은 아이가 함께 탈 수 있는 새 그네가 생겨서 기뻐한 것이다.
-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“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한부모가족의 곁을 지켜준 두리홈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한부모가족도 다른 가정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길 바란다.”라고 강조했다.

붙임 봉사활동 및 차담회 사진

담당부서	국민통합지원단 미디어소통과	책임자	과 장	오 세 용 (02-2100-3471)
		담당자	사무관	정 해 경 (02-2100-3472)